



김금수

옥성씨비스상사 대표

## 물가안정과 축산물 가격

**최** 근에는 한우 값이 계속 상승하여 쇠고기 값까지도 인상시켜 놓았다. 한편에서 보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반대로 폭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우값이 금년들어 최고 시세를 유지한다하여 생산자인 농민들이 좋아해야 할텐데 혜택을 입는 농민이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농민들은 시큰둥한 표정인 것 같다.

사육농가, 사육두수가 줄어 들어서 그런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소 사육농가가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물가안정과 국내 소사육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워 금년 말부터 수입쇠고기가 물밀듯이 들어 오지 않을까하는 경계의 눈초리가 소사육 농가는 갖고 있는 실정하기에 지금의 한우 가격양동이 단기적이지 장기적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은 과연 잘못된 것일까?

물가안정과 축산물 가격? 쇠고기가격이 설령당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농장출하 육계가격과 통닭집의 닭 가격, 계란가격과 시내 버스요금과 다방의 커피가격, 기름 값은 인하하는데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은 인상요인이 있어 인상의 불가피성 주장...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다.

양계업을 20년 가까이 하고 계신 분을 우연히 만나 볼 기회가 있었다. 그분은 계란값이 시내버스요금 값보다 비싸던 옛날이 그리워지고 그 당시는 농장인부도 구하기 쉬웠고 월급 타령, 노는 타령, 휴일 타령, 보너스 타령도 없어 그러저럭 지냈는데 요즘은 주인이 이익은 커녕 손해보면서 농장인부 기분 맞추기 위해 양계업을 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씩씩히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이러한 모순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유독 축산물 가격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항상 희생되어야 하고 몇년간 적자보다 한번쯤 가격이 올라 이익이 좀 생기는가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수입을 해야만 한다는 관련기관의 소리가 높아져 결국은 수입을 하는데...

계란가격이 폭락하여 도산 직전인 양계업에 대하여 팔장끼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의 관련기관의 태도(?)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런지 수십년이상 연구, 노력, 검토하고도 해결책이 없다면 무능해서인가, 관심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땀질정책에 모든 시간을 허비해서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런지... **양기**